

SUNBO FAMILY vol.70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2009. 11.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우리회사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참여해

신시장,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독립부스, 적극적인 유치로 회사 이미지 향상시켜



2009년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약 10개국에서 국가관을 구성해 참가하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 우리 회사도 독립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손님유치로 회사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

김미란 사원은 "예년에 비해 코마린 참여업체는 적은 편이었지만, 올해 세 개의 큰 전시회가 한꺼번에 열려 전체적으로 붐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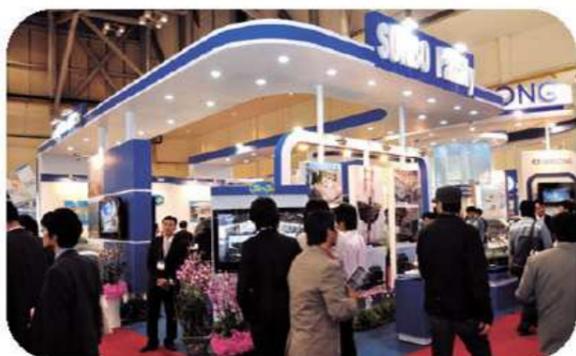
이번 행사를 위해 약 1년 간 준비해 온 우리 회사는 2년 전 보다 크고 좋은 곳에 부스 위치를 선정했다. 특히 각국언어로 번역된 제품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과 모형 구성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수출 영업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다.

4일 간 약 2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우리 부스는 특히 스티튜브 유니트가 실제 부스 내에 설치 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코마린 행사로 인해 선보의 규모에 놀랐다는 관람객도 많았다. 선보의 규모와 잘 갖춰진 프로세스로 조선소 내의 이미지도 한껏 높아졌다는 평이 지배적 이었으며, 또한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에이전트 등 상당수의 해외 바이어가 관심을 표해 앞으로 해외 수출 영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스크기에 비해 손님 확보공간이 부족했고, 선물수급 미흡과 같은 몇 가지 숙제도 남았다.

행사 기간 동안 부스 내에서 함께 했던 김미란 사원은 "사소한 다과준비부터 부스 전체 공사까지 준비하며 2배로 힘들었지만 회사도 알리고 회사 수출전망도 높아져 2배 더 보람있었다"며 "영업부 외에도 타 부서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리에 진행된 것 같다. 이번 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0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09)은 제해방위산업전(Naval & Defence),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 산업전(Seaport),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등 3개 전시회가 통합돼 진행됐다.



3601 시리즈 대우조선해양에 납품



우리 회사 구평공장은 드릴십 구성품 시리즈인 3601(BULK TANK ROOM UNIT)을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했다. 이번 UNIT는 제작 후 납품에만 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대형 구성품이다. 높이가 높고 사이즈가 커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 작업으로 야드에서의 공기를 단축시키고 작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번 납품은 우리 회사가 향후 추진하고 있는 해양 제작에 대한 첫 아웃소싱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해양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상 수상

부산시는 자녀 3명을 뜻하는 11월 1일 (1+1+1)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제2회 다자녀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마련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1년 이상 부산에 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과 근로자 출산장려 등에 앞장서는 향토기업, 손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모범 조부모를 시상했다.

우리회사는 가족친화기업선정 및 활동 등으로 출산친화기업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건강한 가정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매년 다자녀가정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다.



회사 소식

교육

Jump Up 교육 경영시뮬레이션 과정 진행

Jump up 교육과정의 하나로 2010 원가의식과 경영 이해를 위한 경영시뮬레이션 과정이 지난달 19일에서 24일까지 1, 2차에 걸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팀장 이상 3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공리에 진행됐다.

이번 경영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많은 직무의 책임감과 조직 내부의 견고함의 중요성 특히 원가에 대한 중요성을 모의 회사 인수와 계획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교육생은 "이번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실제 경영 흐름 상 어떤 것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Jump-Up 교육이 종료됐지만 이번 시뮬레이션교육의 호응이 좋아 11월내로



일반 관리직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재교육 할 예정이다.

교육을 주관했던 이재민 대리는 "조직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 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이



었던 외·내적 가치 높이기에 부합할 수 있어 목표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라 말했다.

회사 소식

사내 학습조 성과 경진 발표대회 열려 우수 과제 발표 통해 사내 프로세스 혁신 활성화 기대돼



지난달 14일 '09년 사내학습조 성과 경진 발표대회'가 열렸다. 우리 회사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학습조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내 학습조 성과경진 발표대회는 지난 6개월 간 학습조원 스스로 선정한 프로세스 혁신 테마에 대한 과정과 성과를 공유, 전파, 확산하는 자리다.

각 팀은 우리 회사의 2009년 경영 슬로건인 'Value Jump Up' 중 내부 역량강화를 목표로 자유테마를 선정했다. 그리고 경진대회를 통해 지난 6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와 활동 과정을 발표했다. 1등은 최순찬 과장이 학습조장으로 지휘한 '진피연' 팀의 <Package Unit 설계표준화>가 차지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의 준말이라는 '진피연' 팀의 총무 주원석 사원은 "최순찬 과장님과 팀원들이 업무 후에도 남아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하며 많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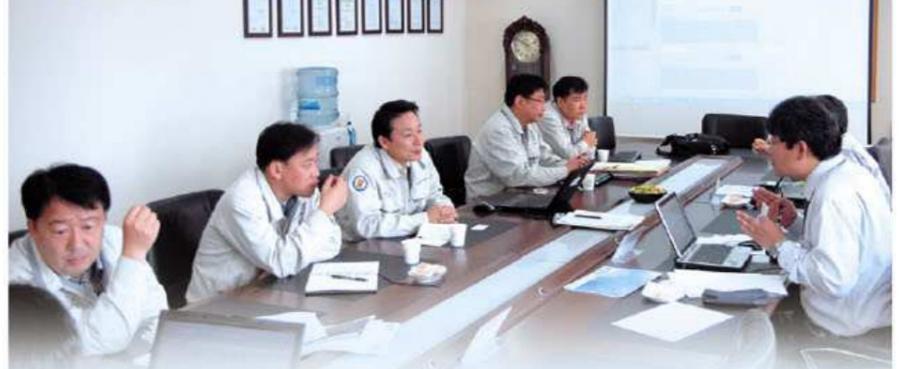
생하셨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일하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처음 시작된 대회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연구하며 역량을 발전시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임고문은 심사 강평을 통해 학습조원들의 성과를 치하하며 "선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 신사업 개발, 고부가가치 해양 프로젝트 수주 등의 성장 동력 확보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을 해보자"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내 학습조 성과 경진 발표대회는 조직 및 개인의 고성 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 임직원의 혁신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 소식

우리 회사 생산성 경영시스템 인증 이상무! 생산성경영시스템 현장 심사 받아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실시된 생산성 경영시스템 현장심사에서 우리 회사가 'Level 5 Plus' 단계를 받았다.

지난 2007년 같은 심사에서 4등급 Plus를 받았던 우리 회사는 2년마다 돌아오는 인증 갱신 심사를 받았으며 삼성, LG 등의 대기업이 7등급 정도의 인증을 받는 것에 비교했을 때 이번에 받은 5등급 Plus는 중소기업 치고 상당히 높은 수차례다.

현장 심사는 조직 성숙도와 경영시스템, 경영 혁신활동 성과의 객관적 측정, 목표 재설정 방향 등을 체크해 경영시스템의 정착화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됐다. 이재민 대리는 "앞으로 더 나은 경영환

경을 만들어 Level 6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회사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생산성경영체제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 PMS) 인증제도란?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주도형 수익 증진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생산성 경영체제는 기업의 사업성과와 경영 시스템의 수준을 10단계의 역량 성숙도 기준(Capability Maturity Model)으로 등급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편의 책 사원의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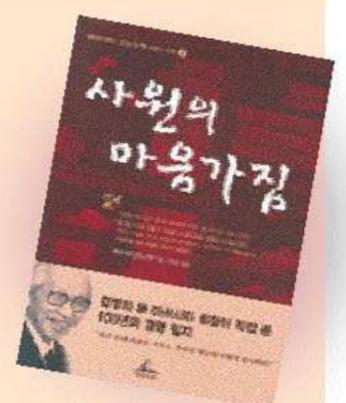
세계적인 대기업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가 쓴 100년의 경영일지!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마쓰시다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경영의 지혜시리즈는 지난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경영 일선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제1편 '사원의 마음가짐'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과 인생의 지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수십 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과 마쓰시다 전기 사원들에게 해왔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사원을 '신입사원, 중견사원, 간부사원'의 3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부분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맞는 마음가짐을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2부에서는 '열린 마음의 힘'과 '충실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사명에 따라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동호회 소식

등산동호회

제5회 산악문화 축제 참가



지난 10/10(토)~11(일) 양일간의 산악문화 축제에 우리회사 등산 동호회 직원들을 필두로 우리 회사에서는 약 50여 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산악문화 축제는 10월 10(토) 13:00부터 10월 11(일)까지 외국어대 운동장에서 "아나바다" 장터와 오토캠프 전시회, 가을밤 축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미음악 공연,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부산산악문화축제 개회식」을 갖고 한미당 노래자랑,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1일차 (10. 10) 14:00부터 금정산 일원에서 1박 2일간 총 6개 경기에 약 60여개 팀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등산대회 일반부 우승과 최연소 마라톤 완주자 정차균 계장(공장/물류) 등 우수한 성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심성섭 등산동호회 회장은 "여러가지로 바쁘심에

도 불구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무사히 저희 선보산악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우수한 성적으로 산악 축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회사 소식



우리 회사가 지난 21일 '2009년 모범중소기업인 멤버십'에 선정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선권과 연수부담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해 플래티늄카드를 발급하는 등 기업 활동에 편의를 얻게 됐으며 회원 간 각종 경영정보 공유를 위해 글로벌 최고경영자클럽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지원정책 참여도와 성과가 높은 중기 경영자 29명과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각각 2009년 모범중소기업인 멤버십과 2009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했다.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한일산업,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겠습니다.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일산업은 유닛 보온자재, 탱크, 패키지 유닛, 파이프 보온 등을 선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다. 12년 된 이 기업이 선보와 거래한 지는 1년 정도, 울산 공장에서 출장 납품을 하다가 선보와 인연을 맺고 부산에 공장을 만들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

김현엽 대표는 현장 사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현장에 있었다. "몸은 힘들지만 일할 때 함께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회사 식구들과 유대감도 생기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대표와 직원들과의 관계는 서먹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김현엽 대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로 돈독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보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 김현엽 대표는 "용접이나 마무리 작업 등이 다른 유닛 업체보다 체계화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산도 체계화 돼 있고 특히 SCM을 통해 관리되어 우리 회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사소한 것 하나도 정확히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일산업은 납기준수와 최고품질 제품생산, 규격품 표준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현엽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는 "직원들과도, 협력업체와도, 믿음이 있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하며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 내실을 더 다지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한일산업, 김현엽대표는 "아무래도 부산공장의 90% 이상이 선보와의 거래니까 선보가 잘되면 우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작지만 탄탄한 기업, 한일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생생 현장의 소리



심성섭 팀장

출하된 제품에도 책임을 가지는 것이 프로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심성섭 팀장이 그런 사람이다.

투박하지만 진실성 있고, 불만 속에 애정이 넘쳐나는 그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였다.

고객지원팀 A/S 서비스 담당을 맡고 있는 심성섭 팀장은 지난 88년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은 이래 햇수로 22년째 선보에 몸담고 있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초창기에 비해 가족적인 분위기가 희석된 점이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납기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아무래도 사후품질관리서비스를 맡다보니 현장에서의 불만을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터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며 “회사에서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불만은 나오지 않을 텐데 대부분 고객사 현장에서 일이 해결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실정을 잘 알려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출장이 잦은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회사에서는 납기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하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한 사람이 그 뒤처리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해결 볼 수 없으니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부탁하자 “집에서 자주 함께 못 있어줘서 미안하고, 여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한다.”며 애정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을 묻자 심성섭 팀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책임을 강조했다.

“무조건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배가 인도 될 때까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프로 아니겠습니까”

선보 칭찬 릴레이

제 42호



오남기 사원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선보의 젊은 피, 자재지원반 오남기 사원

갸웃 얼굴과 목소리를 가졌지만 일할 때는 똑부러지게 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젊은이 오남기 사원 이 22살 청년이 이번호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다.

Q 이 번호 선보가족 칭찬 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지요?

긴급 피스 제작과 용접일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일을 계획적으로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 때는 주변사람들과 장난도 치며 기분 좋게 일하려 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많은 일을 제대로 하고 동료들과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겠지요?

Q 다음 칭찬 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자재지원반 강현욱 사원을 추천합니다. 항상 착수일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노력하고 성실하신 분이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 확인하시고 해결하시는 것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

6곳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누가 누가 잘 찾나!



축하합니다!

- 본사 생입**
- 전산 이종필(11/30)
- 기술영업 이황우(11/18), 문해기(11/7)
- 설계팀 장철호(11/11), 박황수(11/17), 신우철(11/18)
- 생산관리 정재현(11/25)
- 고객지원 김현수(11/13), 강지은(11/15)
- 기술연구소 장호길(11/15)
- 1공장 김수환(11/28), 오진석(11/14), 현광진(11/5)
- 2공장 백선우(11/2), 조종환(11/24), 강민구(11/26)
- 3공장 탁태호(11/17), 김홍호(11/25), 박한수(11/20)
- 박재용(11/2), 최철(11/8)
- 본사 입사기념일**
- 경영지원 윤강재(11/4), 오세진(11/1), 황수영(11/1)
- 품질경영 이현수(11/1), 권희정(11/1)
- 자재조달 김동관(11/2), 이주열(11/1)
- 경영기획 이종필(11/1), 이기환(11/21)
- 기술영업 유우성(11/9)
- 설계팀 임기섭(11/13), 유승균(11/1), 장철호(11/21), 조재민(11/1), 이철훈(11/1), 오성진(11/1), 신우철(11/1)
- 생산관리 장창욱(11/1)
- 고객지원 최권석(11/1), 배승용(11/1), 강지은(11/4), 서원수(11/25)
- 기술연구소 최순찬(11/24)
- 1공장 오진석(11/1), 오남기(11/27), 김형보(11/20)
- 2공장 김종민(11/25), 진정현(11/18), 고숙현(11/18)
- 3공장 최영화(11/15), 이주열(11/5), 윤기현(11/1), 김대근(11/7)
- 구평공장 생입**
- 생산관리 황재환(11/15)
- 설계팀 김황중(11/11), 이순복(11/20)
- 대합FNG 하형수(11/20), 오수용(11/2)
- 보성산업 성기욱(11/24), 전석연(11/1), 성민형(11/17), 차동현(11/5)
- 서경PLANT 노재근(11/17), 양정수(11/17), 이홍주(11/11), 김술(11/15)
-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 Q.A 이태경(11/10), 김현우(11/9)
- 설계팀 광복제(11/21), 오창배(11/13), 윤태웅(11/21), 허수(11/21)
- 영도공장 생입**
- 품질보증 박현일(11/8)
-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 생산관리 이정훈(11/3), 김태경(11/13), 신재석(11/13)
- 목포공장 생입**
- 지디산업 김상일(11/10)
- 지디테크 송영준(11/1)
- 목포공장 입사기념일**
- 설계팀 임성일(11/20), 오승관(11/10)
- 품질보증팀 윤경철(11/10)
- 생산팀 이현우(11/10)